



"TARSHITO FALLS IN LOVE WITH KOREA"

Artworks by Tarshito with Son Oe Ja

한국과 사랑에 빠진 타르시토_타르시토와 손외자의 협업

주최: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청

장소: 시민청 갤러리, 서울시 중구 세종로 110, 지하 2 층

기간: 2019 년 9 월 4~17 일

개막식: 2019 년 9 월 3 일 오후 5 시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청과 함께 "Tarshito falls in love with Korea _타르시토와 손외자의 협업"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문화권을 예술이 어떻게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타르시토가 한국의 아티스트 손외자를 만났다. 서로 다른 창의적 소양에서 출발하는 회화 작품을 함께 그리는 것이 목표였고 그 결과는 "화합"에 공동의 목적을 둔 예술 언어의 융합이었다.

그렇게 하여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제작된 17 점의 작품들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처음으로 소개된다.

예술을 통하여 지식을 고양하고 악습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순환시키는 빛을 작품 안에 담는 것이 이 작품들의 의도이다.

"지도 위에 이렇게도 많은 국가와 선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구상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 세상이 나누어져 있음은 인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며 인간이 나누어져 있음은 세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다. 단 하나의 인류, 단 하나의 지구를 우리는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 오쇼 라니쉬



'단 하나의 지구, 단 하나의 인류'는 타르시토의 계몽적인 근본 원리이며, 그는 다양한 대륙들의 부분과 조각을 **함께** 묶어 새로운 국가들을 창조함으로써 "화합"의 의미를 추구한다. 타르시토는 이러한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며 한국을 이탈리아와 혼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국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자신을 맞이해 준 나라의 성산(聖山)들과 사찰, 그리고 자연과 나무의 일부를 그려 한국의 성스러움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가 그린 나무에 열매로 맺힌 *향아리*는 '수용력'을, 종은 '신의 부르심'을 뜻하며 *물고기*는 '풍요로움과 신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는 새로운 화합의 세상을 창조하였고 아티스트 손외자를 초대하여 그녀가 자신의 전통 회화를 통해 모든 문화를 화합시키는 보편적인 표현 언어로서 이 작업을 완성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서울에 있는 사찰인 보문사에서 회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은 예술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성스러운 매개체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화합, 즉 한국과 이탈리아의 민족과 피조물 간의 우정을 추구하였다. 예술 작품은 일종의 거울이 되고, 관람객들은 그러한 거울을 바라보며 표면적인 '서로 다름'을 뛰어넘는 공감과 일치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